

[ 해외산업간호정보 ]

## 제3차 세계산업간호학회(ICOHN)와 제2차 아시아산업간호학회(ACOHN) 공동학술대회 소개

참석자: 윤순녕 /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본회 증경회장



주제: 산업간호의 지구촌 도전-어떻게 근로자 건강 및 안전과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가?

기간: 2010. 8월 6일(금)-9일(월). 장소는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워크피아 센터

위와 같은 주제로 제 3차 세계산업간호학회(ICOHN)와 제2차 아시아산업간호학회를 함께 일본산업보건협회의 산업간호국이 주최하였다. 이 행사는 세계산업보건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1906년에 창설)의 산업간호학술 및 프로그램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on Occupational Health Nursing In the ICOH)와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학회는 24개국의 337명의 참석자(한국 11명)들이 특별강의, 3명의 주제강연, 주요 심포지움, 심포지움(2회), ACOHN의 특별학술발표, SCOHN의 학술발표, 30여편의 구두발표와 50여편의 포스터발표에 참여하였으며 진지하면서도 활발한 토의와 함께 3일간 진행되었다. 필자는 주요 심포지움에서 가즈코 니시다(일본, 구르메대학)교수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우리나라의 전문 간호영역(specialty)으로 산업간호실무는 산업보건팀과의 학제적 협력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사업장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실무능력 향상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학회의 주제에서도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주제강연과 주요 심포지움도 산업간호사의 직무능력 개발과 교육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이 산업구조, 노동시장 및 인력과 직무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패러다임의 전환과 이를 부추키는 세계화의 경쟁에 놓여 있는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 삶의 질이 산업보건 팀인 산업간호사의 실무능력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번 학회의 주요 흐름을 먼저, 주제강연, 두번째는 주요 심포지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주제 강연자인 Randolph, S.A(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교수)의 OHN의 직무능력에 관한 주제강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과학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안전한 실무는 미국 산업간호사의 직무능력(특정한 기술이나 능력의 성취에 대한 성과 지향적 진술을 말함)에 달려있다. 이에 미국산업간호사협회(AAOHA)의 책임은 산업간호사의 직무능력을 기술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무능력을 수정하는 것이다.

AAOHN은 산업간호사의 직무능력을 1999년에 개발된 것을 2003, 2007년에 검토하였다. 초기에는 교육, 실무, 정부, 산업계 산업간호사 자격인증기관을 대표하는 구성원을 이용하여 초점집단면접과 설문지를 통해 외부의 합의적 타당성 과정에 의해 개발하였다.

산업간호사의 교육수준, 경력, 계속교육, 자격증 유무에 따라 유능성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델파이방법을 이용해 수준을 분류하였다.

결과는 9개의 유능성 범주와 3가지 수준(competent(유능), proficient(능숙), expert(탁월)으로 구

분하였다. 9개의 유능성 범주는 임상실무, 사례관리, 근로자와 작업장 및 환경, 법률 및 관련법, 관리와 리더십,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보건과 안전교육 및 훈련, 연구, 전문직관이었다.

9개 범주별 세 가지 수준은 연속적 직무이행과 자가사정, 그리고 산업간호사 자격교육과정과 경력 계획, 산업간호사 채용과 안전프로그램과 서비스, 직무수행평가 등에 이용된다. 산업간호사의 교육 수준, 경력, 직급에 따라 9개 범주별 세가지 서로 다른 수행수준을 정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산업간호사는 관리와 리더십은 우수해야 좋고, 연구능력은 유능한 수준이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향후 산업간호사의 지속적 직무능력은 사업장에서의 직무범위와 업무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주제 강연자인 프랑스 전 산업간호사회장(Janine Bigaignon-Cantineau)은 세계 각국의 산업간호사의 교육수준이 달라도 산업간호의 기본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 안녕,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산업간호사의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생산성 즉 건강, 환경, 생활양식, 보건의료서비스 대비 생산성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산업간호사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주요 심포지움의 첫 연자인 영국의 Caroline Whittaker는 영국의 산업환경의 변화로 민간 중소기업사업장(근로자 250명 이하)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 공직근로자의 수가 증가 하는 현황을 소개하였다. 영국연방보건과는 사업장이 건강불평등의 발생장소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최근 연구결과 근로자의 노동이 개인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와 사업장의 건강을 높이며 이익이 됨을 입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영국의 산업간호실무는 공중보건이라는 우산 속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04년 “간호조산협의회(NMC)”는 공중보건에서 전문간호실무영역의 한 트랙으로 산업간호를 인정하면서 산업간호사는NMC가 인증한 학사학위수준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과정은 대학이나 교육기관보다는 NMC같은 전문직단체가 개발하는데 크게 관여하였고 "Health visitor", 학교간호사와 같이 보건간호사과정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산업간호사의 경력과 직무능력들이 2005년 산업간호사들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를 영국간호협회가 출판하였으며 (RCN, 2005) 간호교육자와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이 크든 작든 근로자의 건강증진의 주도자로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건강증진의 중요성은 근로자집단의 건강향상과 건강불평등을 감소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영역으로서 산업간호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업무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연자인 준코 하다나가(니폰전화전신회사의 관리자)는 일본 산업간호사의 계속교육과 미래의 방향에 관한 발표에서 기본적 간호교육과정을 마친 간호사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그 사업장에서 요

구하는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계속교육과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스템이어서 흥미로웠다. 기본간호교육과정에서는 산업간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하므로 이 회사에 입사 후 기본과정, 중간과정, 상급과정을 밟는다. 기본과정은 보건간호과정의 이수 후에 이루어진다. 입사 후 교육과정은 회사마다 다르며 첫해는 OHN으로서의 직무능력을 습득과 OJT를 병행하며 두 번째 해는 산업간호실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셋째 해에는 독립적 업무수행, 네 번째 해에는 OHN이 접하는 문제를 대응하며 해결하며 능력수준에 따라 지속적인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한다. 이 연자는 사업장에서의 직무능력개발과 함께 교육제도 안에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연자인 태국의 타니 카웨투마누쿨(창마이대교수)에 의하면 산업화된 기술의 급신장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태국은 동시에 작업관련 질병 및 상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산업간호사의 직무도 법에 불분명하고 산업발전과 함께 요구되어지는 산업간호 전문성을 제공할 OHN의 수와 질적인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업장에서는 일반간호사기 치료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과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훈련도 미흡하다. 이에 창마이 대학이 1998년에 3개월 과정의 산업간호과정을 개설한 후 2003년에 2년의 석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A트랙은 산업간호연구과정이며, B 트랙은 전문간호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석사과정의 목적은 임상적으로나 일차의료서비스의 능력과 건강증진과 위험요인감소 등의 직무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이 석사과정 이외에 4개월 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두 과정의 공통점은 건강증진과 위험요인감소에 대한 직무능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발표를 하였다.

넷째 연자인 일본의 노리코 니시기토교수는(도카이 대학) OHN의 직무능력을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제간 경쟁이 심한 세계추세에 효율적인 산업보건과 안전서비스가 근로자집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OHN의 직무능력이 매우 중요하여 직무능력연구를 수행하였다. 838명의 OHN을 대상으로 11개 활동의 수행정도, 중요성인식 정도, 기술보유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평가활동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수행정도와 기술정도는 다양하였고 연구능력도 마찬가지였으며 상급자의 이해와 유관기관이나 대학 과 연계도 지지환경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와 평가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일본 산업보건협회의 산업 간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평가 시간은 급증하고 있는 학부과정에서도 매우 적고 대학원의 OHN을 위한 전문과정도 매우 드문 형편이며 유일하게 도카이 대학이 1999년에 전문 OHN과정을 개설하여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정도이다. 앞으로 계속교육, 전문직단체, 대학 등에서 이러한 연구와 평가능력을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연자인 란돌후교수(주제강연자로 소개함)는 채플힐에 소재한 노스캐롤라이너 대학에서 AAOHN의 OHN의 직무능력개발에 기초하여 만든 12개의 직무능력도구를 이용하여 석사학위를 마친 후 이 과정의 목표에 도달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캠퍼스(On-campus)에서 한 학생과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을 받은 학생(1997-2005)을 2005년과 2007년도에 두 번 비교분석 하였다. 캠퍼스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원격과정학생이 모든 항목에서 직무능력이 2005년 2008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에 조사에서 3점 만점에 2.0이하를 받은 직무능력은 정책개발, 전문지개발, 연구능력이라는 2006년부터 교과과정에서 보완되었다. 이 연구는 정기적인 직무능력 평가가 졸업생에게 시작했을 때보다 발전된 직무능력을 돌아보게 하고 더욱 준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교수들에게는 지속적 평가로 교과과정 개정과 교과목보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인력, 작업환경은 달라도 근로자집단의 건강증진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간호사의 직무능력을 질적으로 높이고자 미국, 영국, 태국, 일본이 대학기관에서 또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계속교육과정 또는 석사과정등을 제공하며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였다. 모두 기본간호교육과정에서 충족되어질 수 없는 산업간호사의 직무능력은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국가 간 서로 격려와 자극을 주며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번 학회를 평가하였다. 이번 학회에 참석하면서 필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간호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는 한국산업간호를 근거 있는 연구결과물로 다음 4차 ICOHN이나 3차 ACOHN에서 많은 산업간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계산업간호사들과 교류하는 아름다운 도전을 기대한다.



(왼쪽부터) 발표자 노리코 교수(일본), 준코 산업간호사(일본), 캐롤라인(영국), 란돌프 교수(미국) 타니 교수(태국), 공동좌장 윤순녕 교수(한국), 가쓰코 교수(일본)